

지역 소멸 위기 통합으로 넘는다

광주전남특별시

초광역 메가시티로 비상

<1>물리적 통합 넘어 화학적 융합

제2의 수도권 떠오른 충청권과
뽕뽕뽕친 영남권에 낀 '샌드위치'
몸집 안 키우면 생존 자체 어려워

2026년 대한민국 지방 행정지도가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2·3·4면>
수도권이라는 거대 블랙홀이 인구와 자본을 빨아들이는 동안, 비수도권 지자체는 생존을 위한 통합을 추진하는 등 '몸집 불리기'에 사활을 걸었다. 문제는 이 격변의 흐름 속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예외였다는 데 있다. 영남과 충청이 통합을 통해 초광역 메가시티로 비상할 채비를 마치는 사이, 호남권만 남은 행정 경계에 갇혀 있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는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막바지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대구경북특별시'는 단순한 행정 결합을 넘어 한반도 동남권의 경제 지형을 새로 짜겠다는 야심 찬 도전을 현실화하고 있다.

여기에 대전·충남의 기세가 더해졌다. 수도권과 맞닿은 지리적 이점을 무기로 행정통합에 속도전을 내며 사실상 '제2수도권' 도약을 선언했다. 충청권이 수도권의 인구와 기업을 흡수하며 덩치를 키우는 것은 호남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다.

위로는 거대해진 충청권이, 옆으로는 뽕뽕 뽕친 영남권이 버티고 선 '샌드위치' 형국이다.

1986년 분리 이후 40년 가까이 각자도생해 온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대로 서서히 소멸해가는 '남쪽의 섬'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인구 320만 규모의 '호남 초광역 메가시티'로 반격의 서막을 올릴 것인가.

때마침 광주·전남에 절호의 기회가 열렸다.

정부가 '5국 3특' (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어서다. 권역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



'케데한' 골든글로브 2관왕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턴 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골든'으로 주제가상을 수상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걸그룹 '헌트릭스'의 노래 연기를 맡은 레이 아미(오른쪽부터), 이재, 오드리 누나가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관련기사 17면 /연합뉴스

을 한다는 게 골자다. 이 대통령은 최근 광주·전남이 통합하면 '통큰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에 속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통합만으로는 부족하다. 대구·경북의 진통과 대전·충남의 속도전을 반면교사 삼아, 단순 결합을 넘어선 '화학적 융합'을 이뤄내야 한다.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험준한 산들이 존재한다.

가장 먼저 마주할 난관은 통합의 뇌관인 '정사와 조직' 운용 문제다. 소모적인 위치 선정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현 정사를 유지하는 '2개의 정사 체제'를 기반으로 하되, 기능을 철저히 특화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묘수가 필요하다.

또한 '경제 및 산업'의 비전 역시 중요하다. 광주의 AI(인공지능) 기술과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결합해, 충청권 반도체 벨트에 대항하는 '남부권 반도체·에너지 혁신벨트'를 완성해야만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교통 및 인프라' 혁신도 시급하다. 6자 협의체를 통해 타결된 군 공항 이전 합의를 발판으로 무안국제공항을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트라이포트 물류망을 구축하는 것이 통합의 대동맥을 잇는 길이다.

아울러 '제도 및 재정'의 자립 없이는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 입법권과 획기적인 재정 특례를 확보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은 '주민 참여'를 통해 완성돼야 한다. 정치권 주도의 하향식 결합이 아닌, 시민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역민의 마음까지 하나로 묶는 심리적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본래 하나였다. 2026년은 그 끊어진 맥을 잇고 새로운 천년을 설계할 '골든타임'이다. 위기를 넘어 비상(飛上)으로, 호남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광주·전남 범시민 행정통합 협의회' 구성과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여론수렴과 공론화 방안을 논의한다. 광주·전남특별시(가칭) 설치와 관련한 특별법안 마련 등도 담당한다.

협의체는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강원 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정영팔 광주시 지방시대위원장, 조보훈 전 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2면으로 계속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황현필 소장 김상욱 교수 이정모 원장 박동선 모델 김봉중 교수

고수들의 명강연 ... 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4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 전남 전북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3월부터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14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품격 높은 각종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창간 74주년이라는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게 수강생 여러분이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 의료 교육 문화 예술 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3월~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 (호텔 뷔페 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월 25일까지
- 수강료 : 550만원 (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23

光州日報社

도로 검찰청?...중수청 법안 우려 목소리 >6면

엄마기자의 육아일기 - 등하원 전쟁 >18면

페퍼스, 후반기엔 과감하게 자신있게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본격 가동

행정 통합 기본 뼈대 구축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이하 협의체)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2·3면>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협의기구 역할을 담당하는 협의체는 민·관이 함께 행정통합의 명칭, 공론화 방향설정을 비롯해 특별법안 마련 등 행정

통합의 기본 뼈대를 구축하게 된다.

12일 나주시 대호동 전남테크노파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다. 협의체는 이 자리에서 광주·전남 대통합을 뒷받침할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도 공개했다.

협의체는 광주시, 전남도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사·도별 10명씩 총 20명

OK! 자립은
전남시대

전라남도,
대한민국 AI산업 중심지로
미래를 꽃피우다

전라남도